100년이 지나 밝혀진 경주족친들의 국채보상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지원규모

글 : 권오신
안동권씨 종보 편집위원장, 칼럼니스트

경주엔 좌윤공파(佐尹公派) 후손들이 세 곳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

단종사화에 연루되어서 경상도 연일 대잠산에 유배를 온 죽림(竹林) 사정(司正)공 후손들이다. 두류(杜流) 국당(菊堂) 두동(杜洞)문중은 좌윤공파(佐尹公派) 후손들이 조선(朝鮮)개국이후부터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마을로 지금도 3백 여 세대가 넘게 살고 있다.

이들 3개 문중은 국채보상운동은 물론 일제(日帝)의 수탈이 극심했던 시기에도 광복단과 상해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사실이 경주 최부자집 고택 고방(庫房, 살림살이나 서지를 넣어 두었던 광) 고서더미에서 발견, 세상에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경주최부자 민족정신 선양회'(이사장 최염)는 경주시 교동에 위치한 최부자집 고택 고방에서 지난해 여름 발견된 서류뭉치를 분류하던 작업 중 엄청난 양의 두루마리 장지에서 경주부내(慶州府內) 66개 문중별 지원 금액과 독립단체 활동비를 지원한 이름이 적힌 사실을 발견하고 지원 회수와 지원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광복단과 상해 임시정부 지원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를 종합해 보면 경북 풍기에서 조직된 대한광복단과 박상진의 조선국권회복단이 통합, 대한광복회가 결성됐던 1913년을 전후해서 경주부(慶州府) 부남 두동(杜洞, 둥굴)에 세거했었던 천석부자 금포(錦圃) 권재운(權在運,1855~1915, 통훈대부겸 중추원의관, 충청도관찰부판관)공이 16원을, 같은 마을에 살았던 권규운(權奎運) 진사가 20원, 권병술(權秉述)공이 2원을 광복단 총무였던 최준(崔浚, 1884~1970, 독립운동가이자 경주 최부자집 주손)씨를 통해 지원한 사실이 장지 두루마리에서 기록 돼 있었다. 당시 화폐가치로 보면 1원은 지금의 10만원의 가치를 지닐 만큼 큰돈이었다.

이같은 지원은 광복단에서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원 횟수와 금액 규모는 서지(書誌) 학자들의 분석과 조사가 마무리 되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두류(杜流) 국당(菊堂) 두동(杜洞)문중은 상해임시정부 지원에 앞서 펼쳤던 국채보상운동에도 상당 금액을 지원했다.

경주부慶州府 안동권씨 3개 문중의 단연운동

두류(杜流) 국당(菊堂) 두동(杜洞)문중이 벌였던 금연운동은 1907년 일제가 강제로 들여왔던 차관 1300여 만 원에 나라가 넘어갈 위기에 처할 무렵 조선 백성들이 스스로 일으켰던 국채보상운동의 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며 후손들이 빠짐없이 참여한 애국운동이었다.

경주 최부자집 고방에서 발견된 국채보상운동 헌성금 명단에 기록된 경주 백성(百姓)은 안동권씨와 손(孫) 이(李) 최(崔) 박(朴)씨 등 66개 문중 5천 백 명이 넘었다. 이들 문중 가운데 두류(杜流) 국당(菊堂) 두동(杜洞) 등 안동권씨 세 문중에서 지원한 헌성액은 경주부내 66개 문중에서 상위 급에 오를 만큼 헌성금액이 크다.

도록 의연금 3책에 올려 진 성금 내역을 살펴보면 경주부(慶州府) 내남면내 28개 문중 가운데 금포공(錦圃公, 휘諱 재운在運)이 이끌었던 두동(둥굴)이 77원 60전(지금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70만원)을 내어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후손들이 주로 살았던 이웃 율동(栗洞)과 화곡(花谷)이 낸 32원 64전을 합치면 천만 원에 가까운 헌성금이었다.

두동(杜洞)의 이 금액은 경주부 66개 문중 전체에서도 상위권에 들었을 만큼 큰 금액이었다. 두류(杜流)문중(도록 의연금책 2)이 48원 20전(480만원), 국당(菊堂, 도록 의연금책 1)이 35원40전(350만원)을 낸 것으로 기록 됐다. 이들 집성촌을 벗어난 곳에서 독립마을을 이루어 살았던 내남면 덕천리와 평리(16원80전), 월산리(28원20전), 강동면 다산리(28원)의 후손들이 낸 성금을 합치면 훨씬 많아진다.

경주부 두류동(斗流洞) 헌성자 명단에 오른 안동권씨 가운데는 입향조이신 사정공(司正公, 휘諱 수해壽海)의 종손 권경술(權警述), 권두영(權斗永公) 등 28명의 이름까지 밝혀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선대(先代)의 국채보상운동 지원 사실을 알게 됐다.

담배를 끊거나 덜 피우는 금연운동 통해 모은 경주부의 국책보상운동 전체 헌성액은 3304원 29전이었다.

경주지역 3개 문중은 국채보상운동과 광복단 상해 임시정부 지원규모와 횟수가 최종 밝혀지면 이 사실들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단체 포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반강제적으로 차관을 제공,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쓴 천 3백만 원에 나라가 넘어 갈 위기에 처하자 대한제국 백성들이 스스로 나선 애국운동이다.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운동에 경주부내 66개 문중 5천 백 명이 참가, 주로 담배를 끊거나 줄여 15만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다. 특히 경주 단연운동은 모금에 들어가는 경비는 따로 모으고 의연금은 100% 헌성했었다는 점이 특별하다. 운영경비를 분배한 기록에 따르면 "두동 권씨문중 25냥(兩), '국동권씨문중 10냥(兩)"두류권씨문중 15냥(兩)'을 내는 등 708냥(兩)의 경비를 추가부담을 한 사실까지 빼곡히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대한제국 국채보상운동 부분을 보완할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당시 경주 국채보상운동 단연(斷煙, 담배를 끊음)운동을 이끄신 분은 현 '경주최부자 민족정신 선양회' 최염 이사장의 증조부(최현식 崔鉉軾)가 맡았다.

금포조고 독립군 지원

두류 두동 국당 문중의 입향 내력

국채보상운동과 광복단 최준(최부자집 주손) 재무책임자를 통해 독립운동을 지원한 안동권씨 삼문중(三門中)의 경주세거 내력은 보면 〈두류문중〉은 세조 2년(1456), 형 충민공忠愍公(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 단종의 이모부)이 사육신과 함께 도모했던 단종복위 운동이 세조에게 발각 되던 날 죽림(竹林)공은 예천 집에서 자진하고 동생 사정공(司正公, 諱 수해壽海)은 경상도 연일(延日) 대잠산(지금의 포스코 주택단지)에 유배 됐다.

유배가 풀리고도 사정공은 지금의 포항 대잠산을 떠나지 않았다.

후손들은 100년간이나 관직의 길이 묶였지만 사정공의 현손이신 귀봉공(龜峯公, 휘諱 덕림德隣)이 대과(大科)에 급제, 성균관 전적에서 병조 예조 정랑과 합천 영천군수, 경주병마절제사(慶州兵馬節制使, 1670년)를 지내시면서 그의 후손들은 안강과 경주 일원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경주慶州 두동杜洞 문중門中〉 역시 귀봉공龜峯公(휘諱 덕린德隣)의 둘 째 아드님이신 임란 의병장 매헌梅軒 권사민(權士敏) 공公이 입향조가 된다. 매헌공(梅軒公)은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초시(初試)에 14번을 입격하고도 대과(大科)에 나가지 못하고 1592년 임진왜란을 맞았다. 당시 모부인(母夫人)의 안전한 피난 생활을 위해 경주부 부남(府南) 두동(지금의 망성리)을 택했던 것이 두동 문중의 입향조가 되셨다.

매헌공(梅軒公)은 임란 발생한 50여 일 만에 제자와 문도 2백 명으로 창의, 안강 모전산에서 북상하는 왜적을 초멸(剿滅)한 첫 전투를, 그 후 팔공산과 영천성, 경주성(慶州城) 탈환전, 문경 당교전투, 화왕산 전투에 참전했다.

언양현감에 제수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후학 양성과 학문을 닦는데 평생을 바쳤다. 매헌실기(梅軒實記)를 통해 100여 편의 시(詩)와 운문(韻文)을 남기셨다.〈경주향도장초〉

모부인이 돌아가시자 운문산 산려에 써진 묘소에서 3년 시묘를 할 때 여막에 나타난 백호를 꾸짖어 쫓아버린 효손의 일화를 전해들은 정조 임금은 정려각(旌閭閣)을 내리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을 추증했다.

〈경주강동국당〉문중은 어린 조카 단종이 손위(遜位)되던 날 벼슬을 던지고 예천 대죽리에서 은거 생활에 들어갔던 죽림공 권산해(權山海, 단종의 이모부, 사정공司正公의 형)는 세조 2년(1456) 사육신과 함께했던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하자 그날로 "사직(社稷)을 지키지 못할 바에야 내 홀로 살아서 무엇을 하리오. 죽어서 선왕(先王, 문종文宗)께 보은이나 하겠다."면서 누대에서 뛰어내려 자진하셨다.

후일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추증되고 정충각(旌忠閣)이 내려졌다.

충민공(忠愍公, 죽림竹林)의 넷째 아드님이신 판관공(判官公, 휘諱 철손哲孫)은 유배길에 오른 삼촌 사정공(司正公, 휘諱 수해壽海, 죽림공竹林公의 동생)을 따라 연일에서 살게 됐다. 성년이 되신 철손공(哲孫公)이 삼촌의 배소(配所)에서 새로운 세거지로 선택한 곳이 지금의 경주시 강동면 국동(菊堂)리로 '국당입향조'가 되셨다.

경주는 의병정신이 강한 곳이었다. 임진왜란땐 두류(杜流) 국당(菊堂) 두동(杜洞) 문중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7명의 의병장을 배출한 역사적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선대(先代)들의 이런 희생을 통해 고려초에 사성(賜姓)을 받은 안동권씨가 성씨(姓氏)의 고향인 경주에서 김(金) 박(朴)씨 등 신라 성씨(姓氏)를 제치고 사성(四姓)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원인이 되어서 더 자랑스럽다.

아내가 죽었는데… 울기는커녕 노래부르는 장자

중국의 초기 철학자는 공자와 노자와 묵자이다. 공자는 유가의 비조이고 묵자는 묵가를 대표하며 노자는 도가의 시조이다. 노자의 도가를 뒤이은 철학자는 장자이다. 장자는 전국시대 인물이다. 공자의 논어나 맹자 등 유가의 경전을 읽으면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달라질 수 있다. 부지런히 읽고 실천한다면 한 구절을 읽고도 크게 감명받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책이 유가 경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가의 경전은 개인의 수기(修己)와 수양에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경세(經世)까지 두루 포괄하고 있다. 이 말은 유가 경전은 수양서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가의 경전들은 수신서로 사용되지 않았다. 아니 사용할 수가 없었다. 수신하기 이전과 수신 후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장자 지락(至樂)편에는 평생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하며 자식까지 낳고 키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장자는 슬퍼하고 곡을 하기는커녕 질그릇을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장자(莊子)의 아내가 죽어서 혜자(惠子)가 문상을 갔다. 장자는 마침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질그릇을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혜자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자식을 키워 함께 늙은 처지에 그 아내가 죽었는데 곡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무정하다 하겠는데 또 질그릇을 두들기고 노래를 하다니 이거 심하지 않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장자가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소 아내가 죽은 당초에는 나라고 어찌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겠소. 그러나 그 근원을 살펴보면 본래 삶이란 없었던 거요.(察其始 而本无生) 그저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형체도 없었소. 비단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기(氣)도 없었소. 그저 흐릿하고 어두운 속에 섞여 있다가 변해서 기(氣)가 생기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생기며 형체가 변해서 삶을 갖추게 된 것이요. 이제 다시 변해서 죽어가는 것이요. 이는 춘하추동이 서로 사철을 되풀이 하여 운행함과 같소. 아내는 지금 천지라는 커다란 방에 편안히 누워 있소. 그런데 내가 소리를 질러 따라 울고불고 한다면 나는 하늘의 운명을 모르는 거라 생각되어 곡을 그친 것이요."

장자의 시선은 천지자연과 도의 입장에 머문다. 저 우주에서 인간을 바라본다. 인간은 한 줌 먼지보다 작은 미미한 존재다. 그래서 너무 차갑고 매정하다. 인간미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보통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문상 갔던 친구 혜자가 이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힌 모양이다. 아내가 죽어 그 슬픔을 못 이겨 꺼이꺼이 밤새 흐느껴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곡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고 힐책한다. 그래도 장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어이 친구 무슨 소리. 내 말 좀 들어보게. 당장 아내가 죽자 나도 처음에는 그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네. 그런데 생사(生死)의 근원을 살펴보니 본래 삶이란 이 세상에 없었지. 아니 삶이 문제가 아니라 형체도 원래 없었던 거지. 그런데 우주법칙에 의해 기(氣)가 변해서 형체가 되고 삶이 되었던 거지. 인간 등 사물은 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지. 그래서 늙고 변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도(道)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또 쇠퇴하거나 나이를 먹거나 늙지도 않는다네. 도는 영원하고 생사도 없지. 그러면서도 늘 시간과 동시에 존재하지. 그게 바로 도일세. 지금 아내가 생사도 없는 영원한 천지의 방에 편안히 누워 있는데 무엇이 그리 슬프단 말인가. 그러니 오히려 천지의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그 근원(始)을 잘 살펴보시게 친구. 울 일이 아니네.

장자에게서 도덕적 각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죽음이라는 사태를 단지 생물학적 죽음으로만 보지 말고 철학적으로 근원을 살피라고 권유하는 장자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래도 왠지 서운하기만 하다.

편집국장 권행완